

광주매일신문 제12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3강 ‘의미는 삶을 바꾼다’

이범식 대신대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사람은 시련 속 성장...희망 품고 살아야”

20대 감전사고...두 팔·오른 다리 잃어
47세에 공부 시작 박사학위까지 취득
작년·올해 광주-경주 400km 도보 종주
고난 극복·도전 40년 여정 깊은 울림

“의미 있는 삶은 가치를 지기며 관계 속에서 사명으로 확장됩니다. 여러분도 의미 있는 삶을 위해 각자의 희망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광주매일신문이 주최한 제12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3강작가 지난 28일 광주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자로 초청된 이범식(60) 대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는 ‘의미는 삶을 바꾼다’를 주제로 자신이 겪은 고난과 시련 그리고 이를 극복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하며 원우들에게 깊은 울림과 희망의 메시지를 건넸다.

강연에 앞서 이 교수는 2022년 자신이 출연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영상을 통해 본인의 인생을 간략히 소개했다. 그는 1985년, 22세의 나이에 전기공사 중 감전사고로 양팔과 오른쪽 다리를 잃으며 1급 중증 지체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그는 신용불량과 가정 위기, 사회적 좌절 등 수많은 시련을 겪었다. 회복의 시간은 길고 더웠다. 그런 그가 새로운 희망을 품은 것은 지금의 아내 덕분이었다. 그 결과 2011년 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에 편입해 직업재활학을 복수 전공하며 학업에 매진했고 2021년에는 57세의 나이로 박사 학위를 취득, 마침내 교수로 강단에 서게 됐다.

이 교수는 “아내의 응원과 격려에 다시 살아



본보 주최로 지난 28일 광주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열린 제12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3강에서 이범식 대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가 ‘의미는 삶을 바꾼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박상진 기자

야겠다는 의지가 생겼다”며 “그 힘으로 어린 시절의 꿈이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사람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성장한다. 그 모든 고통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며 “의미는 존재의 이유를 찾게 하고, 희망은 다시 일어서게 만든다”고 덧붙혔다.

그는 자신이 정립한 ‘의미 순환모델’도 소개했다.

▲의미 ‘나를 일으키는 시작점’ ▲사명 ‘의미가 행동으로 변하는 순간’ ▲도전 ‘사명이 현실과 만나는 시험대’ ▲회복 ‘시련 속에서 다시 일

어서는 힘’ ▲자부심 ‘회복이 남긴 내면의 증거’ 등의 과정이 끊임없이 순환해 인간을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PEC 정상회의 성공 기원 도보종주’를 했다.

그는 “광주에서 경주까지 약 400km의 길을 걸으며 APEC의 성공 개최는 물론, 영·호남 화합의 메시지도 전하고 싶었다”며 “누구나 도전하면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원우들에게 ‘희망과 가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범식 교수는 “요즘은 비교 경쟁사회라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한다. 비교가 아닌 아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경쟁해야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가치는 삶을 방향을, 의미는 존재의 이유를 부여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장애는 결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과 스스로 만들어가는 희망”이라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각자 광주를 대표하는 리더로서 ‘왜 살아야 하는가’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태호 기자·이연상 수습기자

광주매일 TV kjdaily.com (영상뉴스)



빛고을건강타운 회원들 ‘AI 생태계 조성 촉구’ 성명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회원 200여명은 29일 오전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공영장에서 최근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불발에 따른 비상 연대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활동 중인 자치회를 비롯한 선배 시민봉사단, 은빛도슨트, 노인일자리사업단 등으로 ‘광주 선배시민’의 성원과 염원을 담아 정부의 책임있는 공약 이행과 대안을 강력 촉구했다.

광주 동아여중-더 제로 ‘생태전환교육’ 협약

광주 동아여중이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잔반 제로(Zero)화에 나섰다.

29일 동아여자중학교에 따르면 최근 잔반 제로화 실천을 위해 잔반 측정 전문업체인 ‘더 제로’와 생태전환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아여중과 더 제로는 ▲급식실 잔반 줄이기 활성화 ▲급식실 잔식비영리단체 기부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배현진 더 제로 대표는 “본사의 잔반 측정 시스템을 통해 늘어나는 잔반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학교 탄소배출 제로화에 기여하겠다”며 “광주 지역 많은 학교들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섭 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잔반량을 줄이는 데 앞장서고 학생들이 기후위기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아여중은 기후위기 비상 행동 실천단(학생 자율동아리) 활동과 교육부 주관 탄소 중립 시범학교, 탄소 중립 중점학교로 ‘제2회 환경교육대상’ 최우수상, ‘제2회 녹색 환경대상 환경교육’ 부문을 수상하는 등 광주 지역 학교 환경교육의 선도적 모델이 되고 있다.

/박선옥 기자



전남-일본 ‘사랑에 서포터즈’로 교류·협력

전남도는 지난 28일 도청에서 일본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30여명을 대상으로 전남 방문 환영·도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방문단은 일본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동경호남향우회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28일까지 3일간 담양·신안·해남·영암·목포 등 전남 주요 관광지와 할인 가맹점을 순회하며 지역 문화와 음식, 관광자원을 체험했다.

도정설명회에서는 전남사랑도민증 전달식,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가입 약정서 전달식 등 다양한 교류와 협력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방문단 대표인 이토 유미씨는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일본호남향우회 간담회’에서 전남사랑도민증을 받고 전남 방문을 제안받은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며 “이 약속이 1년 만에 결실을 보면서 전남과 일본 서포터즈 간 우정과 교류가 한층 더 돈독해지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가입자에게는 전남 관광지, 숙박, 음식점 등 80여 개 제휴 할인가맹점에서 혜택을 받는 ‘전남사랑도민증’이 발급된다.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가입 등의 정보는 누리집(https://namdo2jeon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정 기자

정웅철 목포경찰서 경감 ‘베스트 수사팀장’ 선정

정웅철(사진 왼쪽) 목포경찰서 수사팀장(경감)이 최근 전남경찰청이 주관한 ‘2025년 7-8월 베스트 수사팀장’으로 선정돼 즉상(즉포사상)을 수상했다.

정 팀장은 전남경찰청장 표창과 함께 30만원의 수사비를 부상으로 받았다.

정 팀장은 속칭 ‘기(氣)치료사’라 불리며 네 이버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치료 능력을 과시하고 ‘기치료’ 명목으로 29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 하며 피해자들을 기만해 총 725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해당 금액 전액을 기소 전 물수·추징 보전에 피해 회복에 기여했다.

전남경찰청은 도내 22개 경찰서의 지능·통합 수사팀장 46명과 수사관 244명을 대상으로 수사



성과를 평가해 이번 베스트 수사팀장을 선정했다.

한편 정웅철 팀장은 1999년 경찰에 입문해 장흥경찰서 수사과장, 무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등을 역임한 ‘수사 베테랑’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철저한 수사로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목포=정혜선 기자



“담양지역 발전' 고향사랑기부 잇따라

담양군은 “최근 군청 소재원실에서 곡성군산림조합 직원 16명, 담양추억의골목 김창식 대표, 화순참막걸리 정승기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곡성군산림조합과 담양군산림조합 직원 30여명은 상생과 우정을 다지는 뜻으로 100만 원을 상호 기부했다.

심우갑 곡성군산림조합 상무는 “양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을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김창식 담양추억의골목 대표는 “100만 원을 기탁하며 ‘담양에 대한 애정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승기 화순참막걸리 대표 역시 100만 원을 기탁하고 “담양 전통주가 고향사랑기부 인기 답례품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담양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이웃 지자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소중한 마음으로 담양에 기탁해준 기부자들에게 감사하다”며 “기부금은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법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과학교실 운영

법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LG이노텍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교육 프로그램 ‘2025 주니어 소나무교실’ 소재부품 과학교실’에 선정돼 청소년 대상 과학 체험활동을 펼쳤다.

29일 법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따르면 ‘주니어 소나무교실’은 LG이노텍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과학·환경 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회차, 4과목으로 구성돼 청소년들이 직접 실험하며 과학의 원리를 익히는 체험형 수업으로 진행됐다.

1회차에서는 볼록렌즈 실험을 통해 빛의 굴절과 초점의 원리를 배우고 탄소중립 방탈출 게임을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념을 학습했다.

2회차에서는 반도체 구조와 전자회로 기초를 배우며 무드등을 직접 제작하고, 자율주행차 교구를 조립·구동하며 미래 자동차 기술을 체험했다.

참여 청소년들은 “직접 만들다 보니 과학이 훨씬 재미있게 느껴졌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법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로·체험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결혼

▲박향선(길가래 대표)씨 장남 문기영군, 고재남·조병민씨 장녀 세화양=11월1일(토) 오후 6시 소풍컨벤션웨딩 7층 라온제나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39, 02-624-7777, 010-8506-0688.
▲박세중(한국학호남진흥원 사무국장)·김현숙씨 장남 범석(타임게이트)군, 이동훈(기아자동차)·정혜선씨 장녀 나래(광주시교육청)양=11월8일(토) 오후 4시 더시그너스웨딩 3층(광주 서구 죽봉대로 82 교원공제회관).
▲신인수(장성 신약국)·정선미씨 차남 희진(논산 참약사대안약국)군, 박승호(이주경제 광주취재본부장)·서미애(서울신문 광주전남취재국장)씨 차녀 세원(대전 건강강약국)양=11월16일(일) 오후 12시30분 드메르 웨딩을 신관 지젤을 1층(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549).